

장성군,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 '박차'

호남고속도로·KTX 경유...접근성 좋아 설립 최적지 꼽혀 향토음식 교육·간담회 등 진행...‘마을 조리장 발굴’도 추진

장성군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발굴·보존·연구·개발하는 국가 기관인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전남 최북단에 위치한 장성군은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남도의 관문으로 호남고속도로를 품은 데다 KTX까지 경유해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꼽힌다.

이에 군은 최근 향토음식에 관심 있는 청년, 학생, 농업인 등이 참여한 남도·향토음식 진흥교육 8주 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

서 향토음식을,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는 정관스님 사찰음식을 각각 배웠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 ‘맛의 방주’ 등재를 위한 향토음식 발굴 간담회도 가졌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향토음식과 토종 종자를 ‘맛의 방주’에 등재해 소멸을 막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5월 열린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꽃길축제에선 ‘남도음식영화토크쇼’를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음식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상영화와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김현진 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황해림 영화계 기획자가 한 자리에 모여 관객들과 대담을



장성군이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사찰음식 교육 중인 정관스님.

〈장성군 제공〉

나눴다. 대외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

다. 프랑스 요리 전문학교 르꼬르동블루의 에릭 브리과 본교 학과장 및 관계

자들과 유럽연합대사단이 백양사를 찾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장성군과 동

신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취·창업을, 동신대는 미식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씨제이(CJ)푸드빌은 장성 농특산물로 신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중에서는 ‘마을 조리장 발굴’이 눈에 띈다. 집장, 감 단지 등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고유의 조리법을 지닌 주민을 마을 조리장으로 임명해 향토음식의 진흥을 도모한다. 읍면 추천과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추후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쿠킹 클래스 강사로 초빙하는 등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음식,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장성군이 가장 적합하다”며 “세계적인 준비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에 한 걸음씩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군, 민선 8기 호도 행정 ‘향촌복지’ 실현

군민 32%가 65세 이상...공익형 일자리 활동 일수 확대 경로당·요양시설 보강, 마을 주치의 등 의료서비스 UP

담양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새로운 호도 행정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만의 복지모델을 구축, 어르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향촌복지’는 군민의 약 32%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특성을 고려한 이병노 군수의 맞춤형 공약으로 어르신들이 담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군은 군비 5억5천여만원을 추가해 현재 10일이던 공익형 일자리 활동 일수를 12일로 확대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어르신 대부분이 교통 약자인 점을 고려해 마을 단위의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안전한 일자리를 조성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내가 일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돼 손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 일상의 활력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을 수립, 경로당과 요양시설의 기능 보강,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4년 간 7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건지소의 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우리마을 주치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마을 주치의는 공중보건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기본 진찰, 건강지표 측정과 상담, 치매와 우울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주고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자원봉사자와 1대 1로 연결해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는 어르신 지킴이단의 확대 운영, 가 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향촌복지 정책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며 어르신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호도 행정’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4년 간 7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군이 새로운 호도 행정 ‘향촌복지’를 통한 어르신 복지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있다. 〈담양군 제공〉

고흥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본격화

5개 단체 선발...600만원 과업수행비 지원

고흥군은 “최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자로 5개 단체를 선발, 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들이 교육, 창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지역을 살리고 청년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역량 있는 지역 청년단체 발굴을 위해 지난 4월2일 공개모집을 거쳐

사업을 신청한 8개 청년단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고 청년단체별 사업참여 역량, 체계성, 효과성, 창의성, 지속성을 중점 심사하고 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청년단체에는 600만원의 과업수행비가 지원되며 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 군 청년정책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공동체 활동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발대식을 갖고 각 팀 성과 공유 행사를 11월에 개최, 전남도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청년공동체에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최봉환 기자

광양경찰서, ‘범죄예방환경 조성’ 5건 선정

도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광양경찰서는 15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은 모두 범죄 예방환경 조성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광양시청 등 지역사회공동체와 협업, 범죄 취약지역에 CCTV·보안등·가로등·로고젝터 및 쏠라표지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 특히 광양경찰서는 올해 자치경찰위



원회 주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2건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1건, 전라남도 주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건, 전남도경찰청 주관 ▲범죄예방환경조성 활동사업 1건 등 총 5건의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재봉 경찰서장은 “주민을 위한 치안 사책 발굴과 안전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순천,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내달 1일부터...15세 이상 70만원·개장 유골 35만원

순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서는 그간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논의됐으나 서민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년 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화장시설 운영 수지가 날로 악화돼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전국 평균 가격으로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관내(순천시민) 사용료는 기존 15세 이상 5만8천원, 15세 미만 4만5천원과 같지만 관외(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70만원, 15세 미만과 개장 유골은 35만원으로 인상했다.

사망자가 순천시에 전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등록 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관외가 아닌 특별로 적용해 40만5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조건이 되지 않아 먼 지역까지 원경을 가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외 범위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순천=정기기자

곡성형 성장·돌봄 체제 구축 박차

민간 주도 TF팀 구성...학령인구 감소 등 선제 대응

곡성군은 “최근 곡성형 성장과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 주도형 곡성형 성장돌봄 TF팀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곡성형 성장돌봄 TF팀은 곡성교육회의,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청소년의회, 학부모 등 돌봄과 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로 구성됐다.

TF팀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모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허성균 곡성교육회의 대표가 위원장으로 각 기관 업무 관계자, 민간위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성장돌봄 TF팀의 운영 방향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성장돌봄 TF팀은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민이 성장하고 돌봄을 받으며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중으로 TF팀의 모든 활동은 주민들의 주체성과 협력 아래 진행해 관련 부서의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곡성=이호산 기자



김성 장흥군수, 국비 유치 중앙부처 방문

대덕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건의

김성 장흥군수가 2024 국고 건의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장흥군은 15일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 13일 2023년 공모사업과 2024년 국고 건의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각각 찾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대덕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대덕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은 4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 사업이다. 낮은 제방고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 피해가 잦아 정비사업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군은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교량, 취수보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3개 마을 124세대, 214명이 재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과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ASC-MSC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무산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산김 생산과정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나, 마른김 가공공장의 친환경 인증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건의에 나섰다.

군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으로 품질 고급화와 수출 판로 확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사업도 건의했다. 현재 국제 사료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한우 사육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 군수는 “지역에 필요한 현안 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의 소득 기반 확보와 안전을 위한 관련 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